

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 한 걸음 도약... ‘2025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’ 성황리에 마무리

- 21개국 4,530명 참여...바이오 대전환 시대의 미래 발전방향 등 논의
- 해외 진출 지원...해외 규제당국자와 국내 기업간 1:1 미팅 총 11건 성사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‘바이오,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’라는 주제로 9월 3일(수)부터 9월 5일(금)까지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‘2025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(GBC)’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.

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GBC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, 제약업계, 학계 전문가 등 약 4,530명*이 참석하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 및 최신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규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고 평가된다.

* 총 21개국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94명 강연, 학계·산업계·규제기관 등 4,53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(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및 품질 포럼 754명, 백신포럼 431명,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423명 등)

■ [혁신] 첨단 기술과 규제과학을 아우르는 바이오 혁신의 장

빠르게 발전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관리 동향을 포함한 최신 기술 기반 개발 현황과 관련 글로벌 규제 조화, 자가복제 RNA 등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 심사 등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최신 심사 사례를 공유하고 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규제 고려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.

또한,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(AI) 등 첨단 기술의 개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과학의 혁신과 발전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.

■ [협력] 전 세계 바이오 규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

유럽, 호주, 에콰도르, 일본, 태국 등 글로벌 규제당국자들이 ‘글로벌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’에서 각국의 허가·심사제도 운영 사례, 최신 정책 동향, 글로벌 규제기관 간 정보 교환과 공동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
아울러, 에콰도르 식약처(ARCSA) 기관장을 초청해 한국 의약품이 신속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참조제도 실효성 확보를 요청하고, 제약사 대상 진출 전략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업계의 중남미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GBC가 글로벌 규제 협력의 장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지원하고,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<붙임>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(GBC) 현장사진

담당 부서	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정원 (043-719-3302)
		담당자	사무관	조아라 (043-719-3310)
			연구관	최민정 (043-719-3314)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	책임자	과 장	김재옥 (043-719-3461)
		담당자	연구관	김지현 (043-719-3462)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	책임자	과 장	김호정 (043-719-3501)
		담당자	연구관	배창준 (043-719-3508)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의약품연구과	책임자	과 장	이철현 (043-719-4701)
		담당자	연구관	오호경 (043-719-4704)
담당 부서	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	책임자	과 장	임상우 (043-719-3316)
		담당자	연구관	남주선 (043-719-3331)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	책임자	과 장	왕소영 (043-719-3531)
		담당자	연구관	백정희 (043-719-3534)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	책임자	과장직무대리	박기대 (043-719-4752)
		담당자	연구관	강나루 (043-719-4753)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	책임자	과 장	손경희 (043-719-5401)
		담당자	연구관	이석배 (043-719-5428)
담당 부서	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	책임자	과 장	안광수 (043-719-3651)
		담당자	연구관	문성은 (043-719-3652)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	책임자	과 장	정기경 (043-719-5201)
		담당자	연구관	김태성 (043-719-5108)
담당 부서	규제과학정책추진단	책임자	과 장	임현진 (043-719-1781)
		담당자	연구관	최인선 (043-719-1375)
담당 부서	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	책임자	과 장	김정연 (043-719-27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소향 (043-719-2780)
담당 부서	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현선 (043-719-1711)
		담당자	사무관	유미숙 (043-719-2555)

담당 부서	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	책임자	과 장	박재현 (043-719-5061)
		담당자	연구관	임숙 (043-719-5062)





<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개회사 >



< 이주영 의원 축사 >



< 오상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 축사 >



< 데니스 슬래먼 UCLA 교수 기조강연 >



< 유키코 나카타니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 기조강연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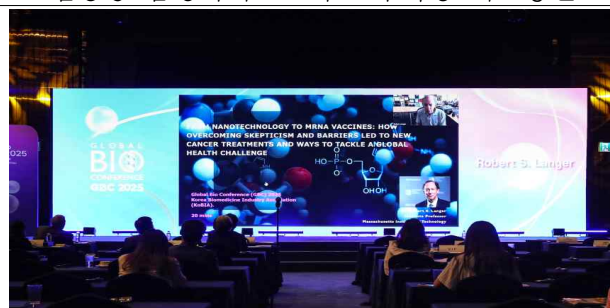
<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기조강연 >



<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기조강연 >



< 제프리프란서 일라이릴리 부회장 기조강연 >



< 로버트랭거 MIT 석좌교수 기조강연 >



< 행사장 로비 전경 >



< 바이오 로비 전시 관람 >



< 개회식 기념사진 >



< 식약처-에콰도르 보건의약품청 양자회의 >



< 백신 포럼 >



< WHO-PQ 포럼 >



< NIFDS-PMDA 공동 워크숍 >



< 환자 중심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 토론회 >



< 글로벌 규제당국자 1:1 미팅 >



< 동물대체시대의 지평선을 넘어 >



<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>